

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분석 보고서

Kstat Report

사회지표 || 2023년 9월 14일

케이스탯 2023년 9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2%, 소폭 하락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1%, 횡보
- _ 정부 신뢰도 : '신뢰' 26%, 소폭 하락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3%, 횡보
- _ 총선 투표 정당 : '정했다' 42% vs '아직 안정했다' 41%
- _ 자기 삶 평가 : '고군분투' 66%, '고통' 20%, '번창' 14%

■ 9월 특별지표 : 사회통합 및 계층상승 가능성

- _ 사회통합성 평가 : 우리 사회 '분열됐다' 88%
- _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 '있다' 56% vs '없다' 44%
- _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개인 노력으로 '가능' 34%

Kstat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9월 1일(금) ~ 9월 3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4\%$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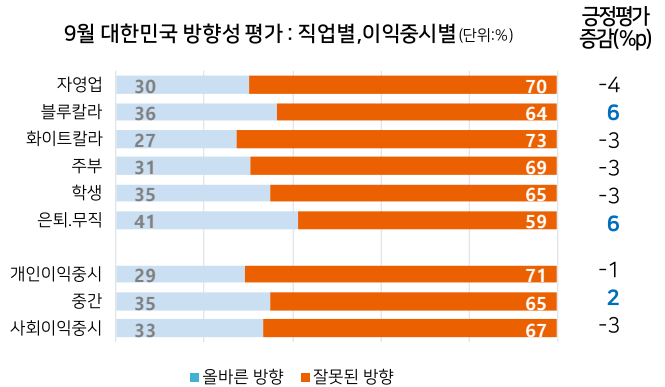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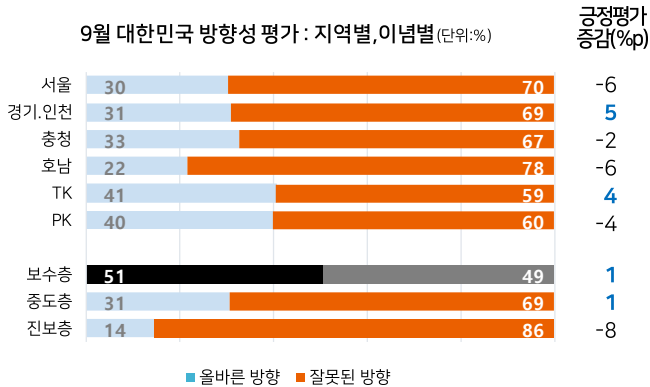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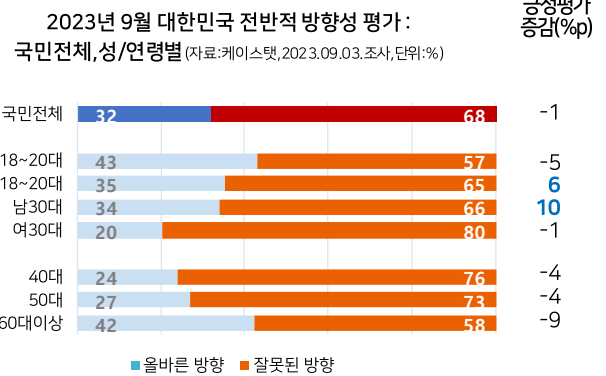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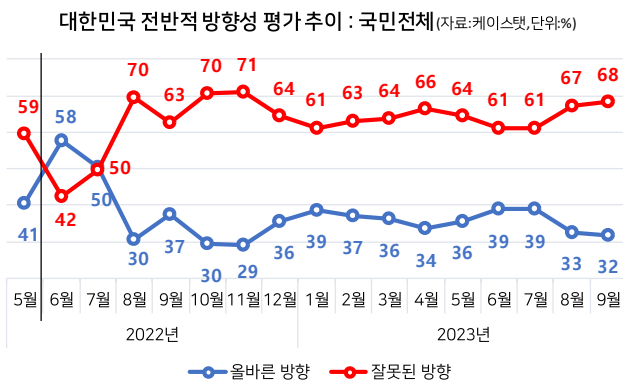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9월 정기 지표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2%, 소폭 하락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 응답은 32%, '잘못된 방향' 응답은 68%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대 △4050세대 △호남 △진보층 △화이트칼라 등에서 높았음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TK, PK 등이었음
 - △보수층은 긍·부정 응답이 팽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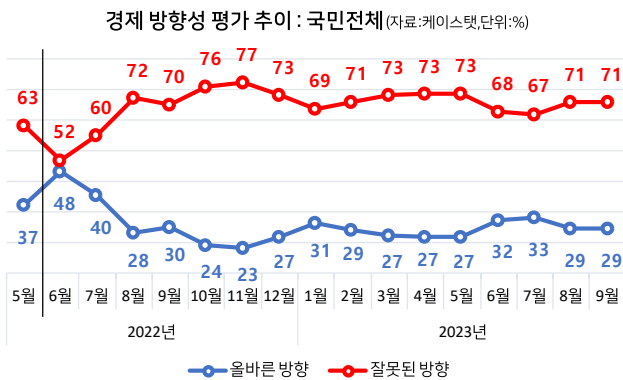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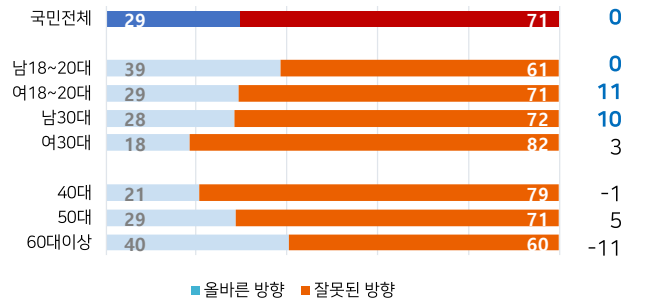
- ☑ 지난달 크게 하락하며 30% 초반대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달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 최근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도 30% 후반대를 기록하던 지난 7월 대비 하락한 모습인데, 이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홍범도 홍상 이전 등 이념 관련 논쟁,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 등의 부정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NBS) 7월 1주 38% → 7월 3주 34% → 8월 1주 35% → 8월 3주 38% → 8월 5주 33%
 - : (갤럽) 7월 1주 38% → 7월 3주 33% → 8월 1주 33% → 8월 4주 34% → 8월 5주~9월 1주 각 33%
 - : 8월 말~9월 초 굵직한 주요 이슈 및 사건들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홍범도 장군 홍상 이전과 정윤성 역사공원 추진 등을 둘러싼 논란 및 이념 논쟁,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글로벌 경제 변동성 확대 진단 및 내년 국내 경제 전망 하향 조정 등이 있음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1%,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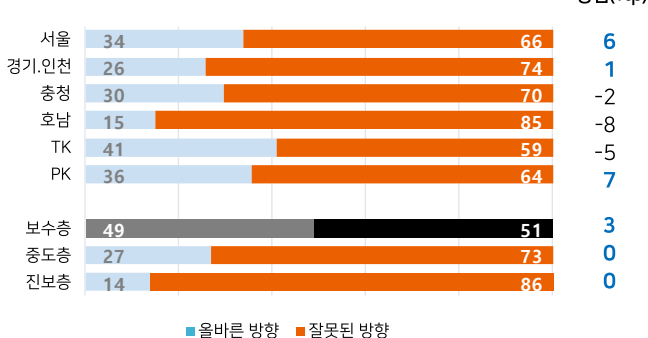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지난달과 동률인 71%를 기록함
 - 2023년 9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29% vs '잘못된 방향' 71%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30대 △40대 △호남 △진보층 등이었음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서울, TK, PK △은퇴·무직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 △보수층은 긍·부정 응답이 팽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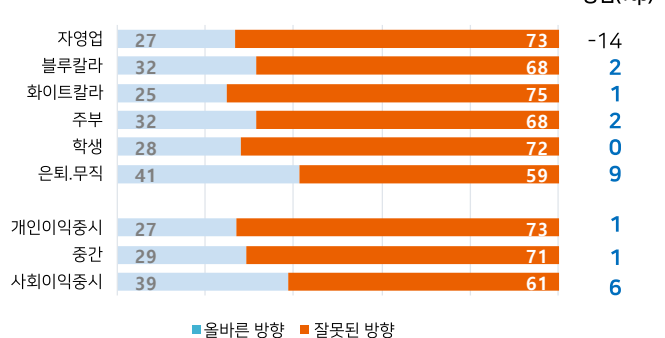
2023년 9월 경제방향성 평가 : 국민전체,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2023년 9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단위:%)



9월 경제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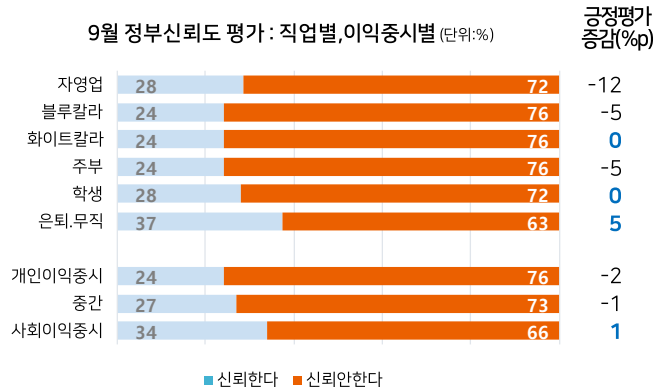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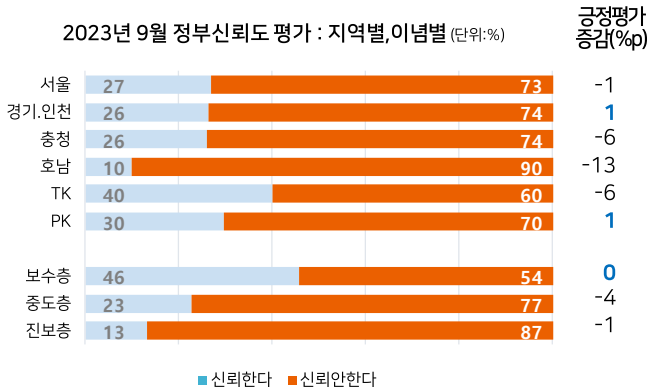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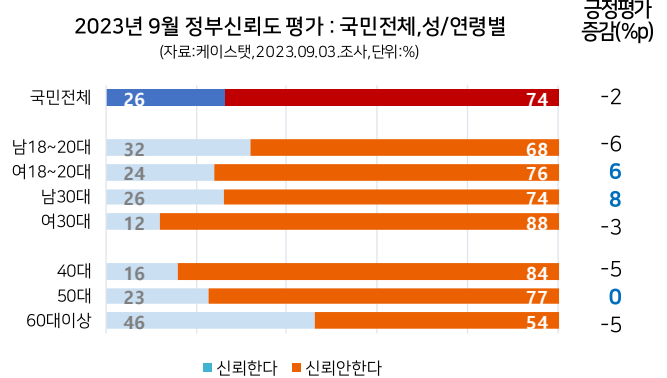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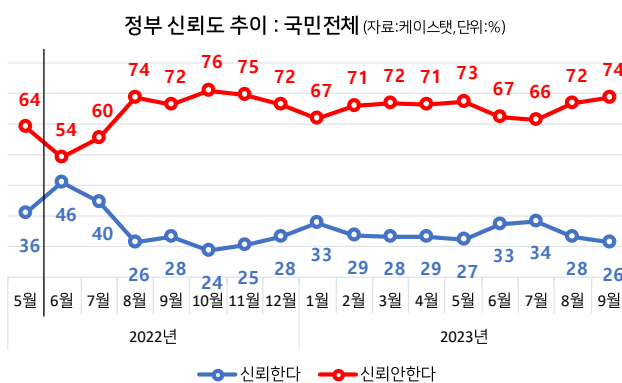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8월부터 약 1년 1개월 동안 우리나라 경제 방향성에 대한 부정평가는 대체로 70%대의 박스권에 갇힌 양상으로, 국민들의 경제우려감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작년 3분기 이후 국민들의 향후 1년 국가경제 전망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줄곧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30%p 이상 앞서고 있음 ※자료: 한국갤럽
- ☑ 정부와 국내외 경제기관들 사이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 속 국민들의 경제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제 방향에 대한 부정평가는 한동안 70%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지난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이후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여러 지표들이 상당히 괜찮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반도체 경기 개선 등으로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음
 -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0일 '하반기 세계경제의 피크아웃 국면이 예상되며,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음

□ 정부 신뢰도 : '신뢰' 26%, 소폭 하락

-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26%를 기록함
 - 2023년 9월 조사 결과, '신뢰한다' 26% vs '신뢰하지 않는다' 74%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대 △40대 △호남 △진보층 등에서 두드러짐
- '신뢰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TK △보수층 △은퇴·무직자 △중간이직 중시층, 사회이직 중시층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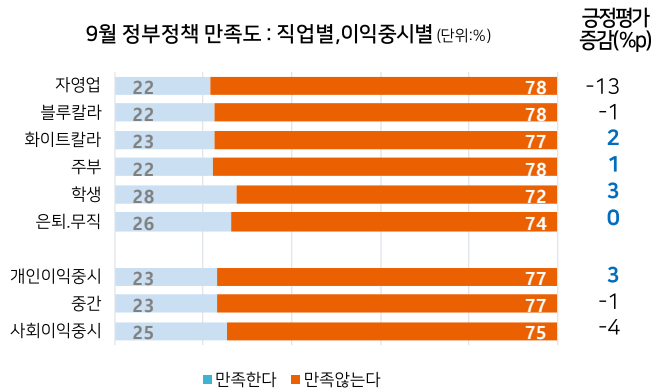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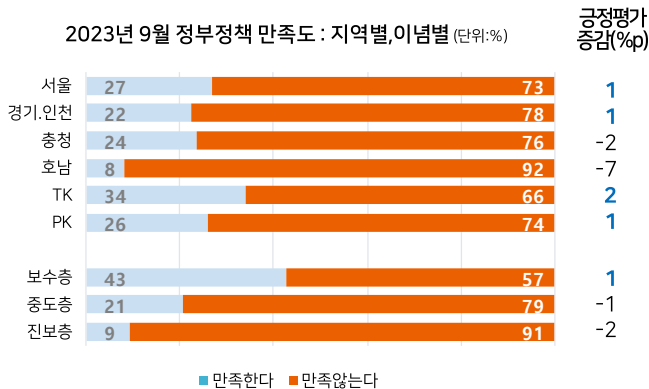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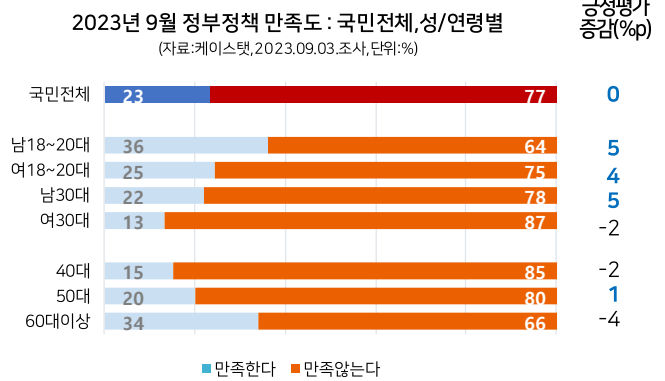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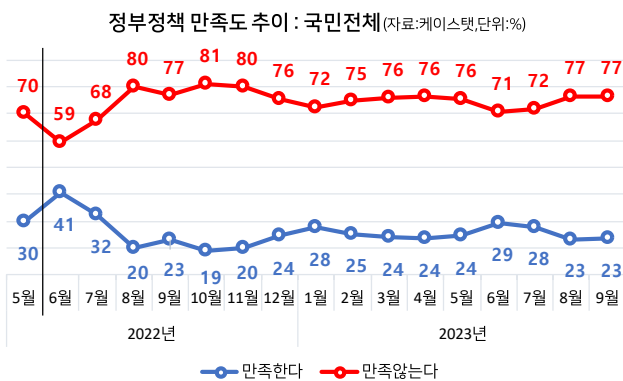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부 신뢰도가 최근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0%대에 머물러 있는 점을 보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나 믿음 수준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보임
- 계층별 여론을 살펴보면, 정부 '불신' 응답이 최소 54%에서 최대 90%까지 분포해 있음
 - 더욱이 정부 '불신' 응답이 54%인 계층은 정의 핵심 지지층인 60대 이상의 고연령층과 보수층인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은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높지 않은 상황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임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3%, '불만' 77%

- 정부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최근 2개월 연속 25%를 하회하고 있음
 - 2023년 9월 조사 결과, '만족한다' 23% vs '만족하지 않는다' 77%
-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대 △40대 △호남 △진보층 등에서 높았음
- '만족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TK △보수층 △학생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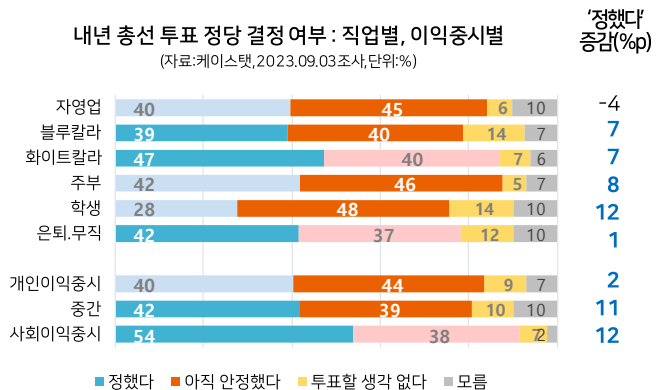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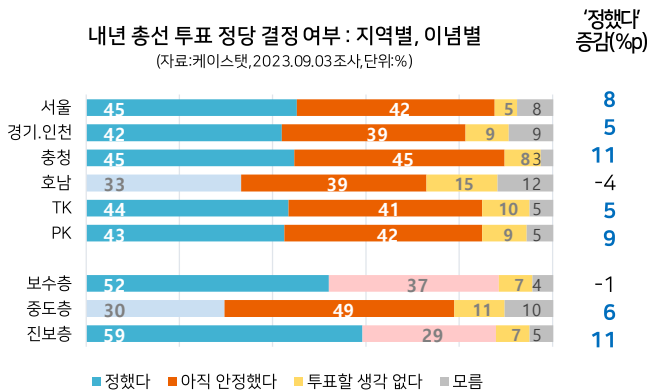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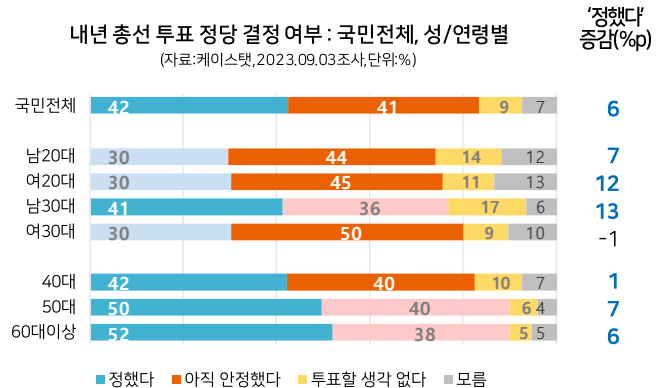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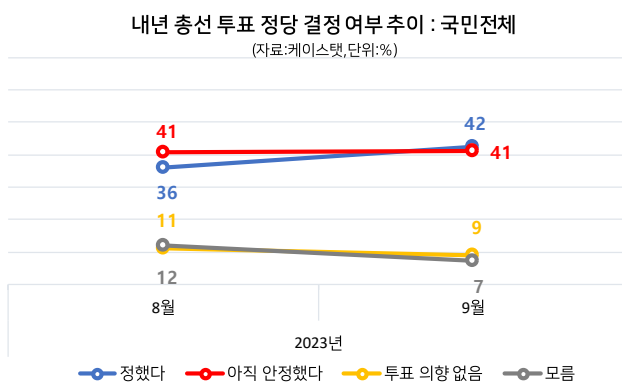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책 만족도가 지난달에 이어 20% 초반 선의 저조한 수준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중국 경기불안 등 차이나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국제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8월 5주에 NBS에서 조사한 정부의 국정 비전 및 가치실현과 관련한 여러 측면의 평가를 살펴보면, '경제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평가는 22%에 불과했으며, 같은 기간 30%대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국정운영 신뢰도와도 큰 차이를 보임

□ 총선 투표 정당, '정했다' 42% vs '아직 안정했다' 41%

- 내년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정했다' 응답은 42%, '아직 안정했다' 응답은 41%로 나타남
 - '투표할 생각이 없다' 응답은 9%, '모르겠다' 응답은 7%로 조사됨
 - 질문: "선생님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 정하셨어요, 안정하셨어요?"
- '정했다' 응답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50대, 60대이상 △보수층, 진보층 △화이트칼라 △사회이직 중 시층 등임
- '아직 안정했다' 응답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2030세대 △충청 △중도층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임
- '투표 의향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호남 △블루칼라, 학생 등임



Kstat Point

- ☑ 내년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이 투표할 정당을 정한 것으로 나타남
 - : 8월 2주(36%) 대비 '정했다' 응답이 3주 만에 큰 폭(5%p)으로 오른 가운데, 보수층은 1%p 감소하고, 진보층은 11%p 증가한 점이 눈에 띈
 - : 이를 8월 5주차 발표 NBS의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8월 3주 대비 '정부여당 지원' 응답이 5%p 감소한 반면, '정부여당 견제' 응답이 6%p 증가한 것과 함께 살펴보면, 현시점 기준 총선 민심은 여당보다 야당 쪽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고군분투' 66%, '고통' 20%, '번창'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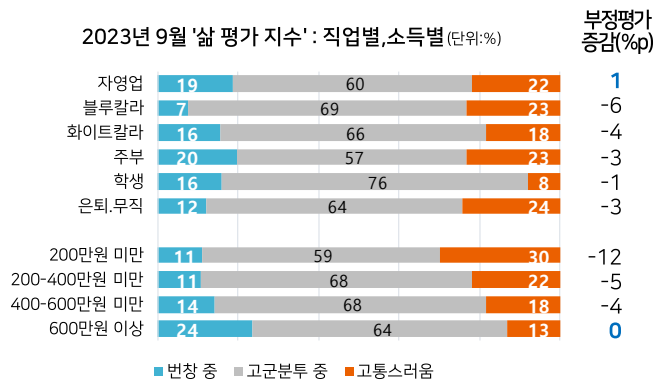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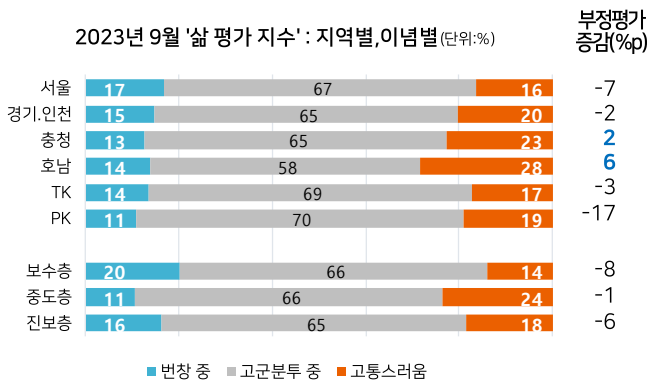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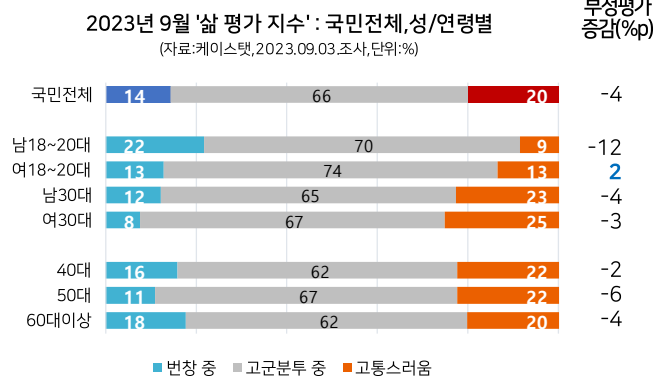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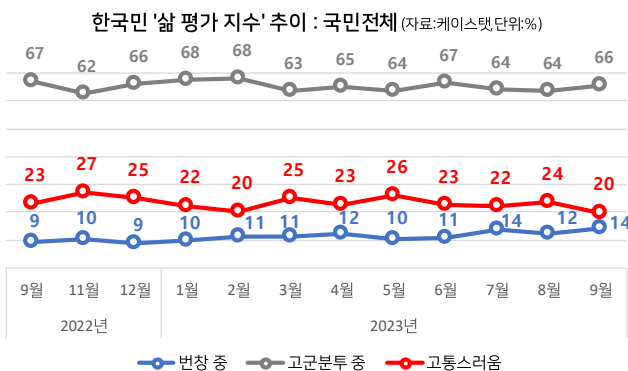
- 국민들의 '삶 평가 지수'를 유형화해 살펴본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와 '번창 중' 응답이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고통스럽다' 응답은 큰 폭(4%p) 감소함
- 9월 조사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66%, '고통스럽다' 20%, '번창하고 있다' 14% 순으로 나타남

※ 현재와 약 5년 후의 자기 삶의 단계를 '최악' 0점 ~ '최고' 10점 사이에서 평가한 후, 3가지로 유형화함

- ① 번창하고 있다(Thriving) : 현재 7점 이상, 미래 8점 이상 ② 고군분투하고 있다(Struggling) : 유형 1·3 외 전체
③ 고통스럽다(Suffering) : 현재·미래 4점 이하

- '삶 평가 지수'의 유형별 비중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고통스럽다' 유형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30대 △호남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임

- '번창하고 있다' 유형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보수층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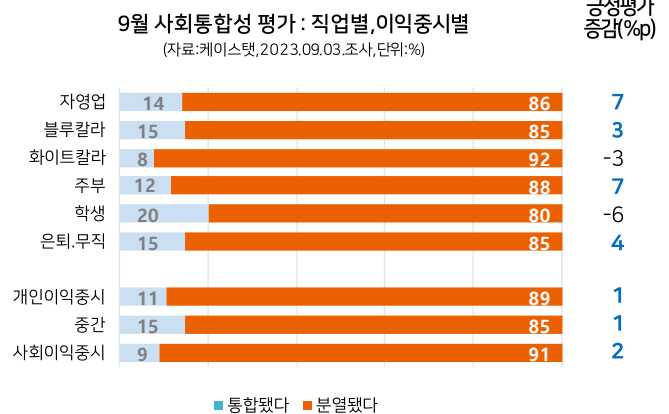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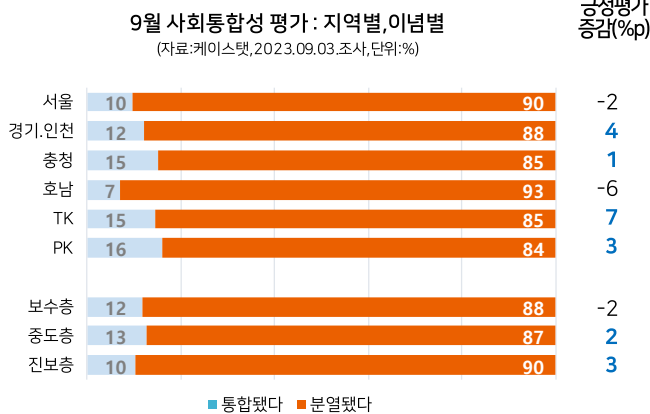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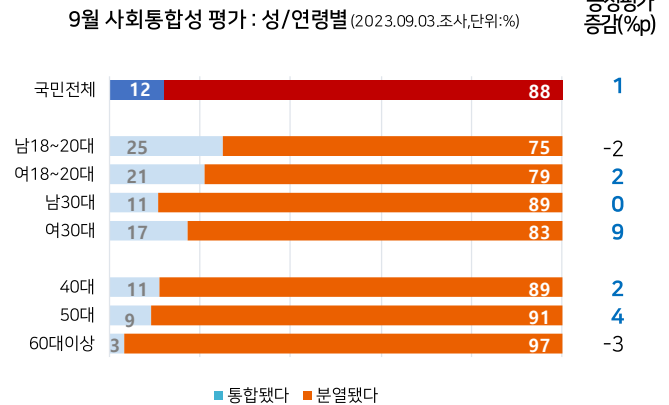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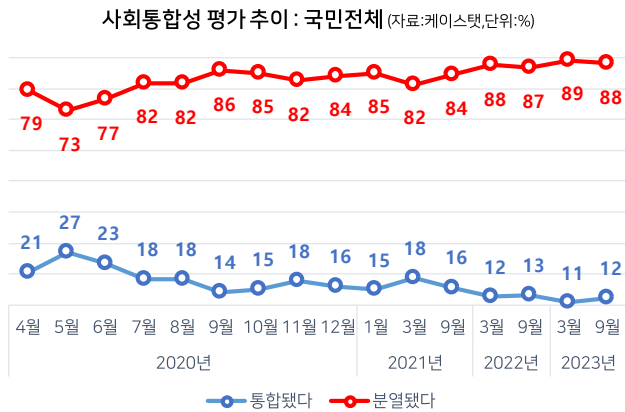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자기 삶 평가에서 '번창 중'도 '고통스러움'도 아닌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 계층에 6~70%대를 기록함
- ☑ 삶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생활과 삶의 맥락 속에서 자기 삶과 자신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인지적인 차원)과 만족도, 행복감, 정서적 안정감(정서적인 차원) 등을 측정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로 자기 삶과 자신에 대해 인지적·정서적으로 긍정과 부정 사이인 보통 수준의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보임

9월 특별지표 : 사회통합 및 계층상승 가능성

□ 사회통합성 평가 : 우리 사회 '분열됐다' 88%

-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응답이 88%로, 작년 3월 이후 85%를 지속해서 상회하고 있음
 -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회가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통합됐다’는 응답이 12%, ‘분열됐다’는 응답이 88%를 기록함
- 모든 계층에서 ‘분열됐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50대, 60대 이상 △호남 △화이트칼라 등임
- ‘통합됐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2030세대 △PK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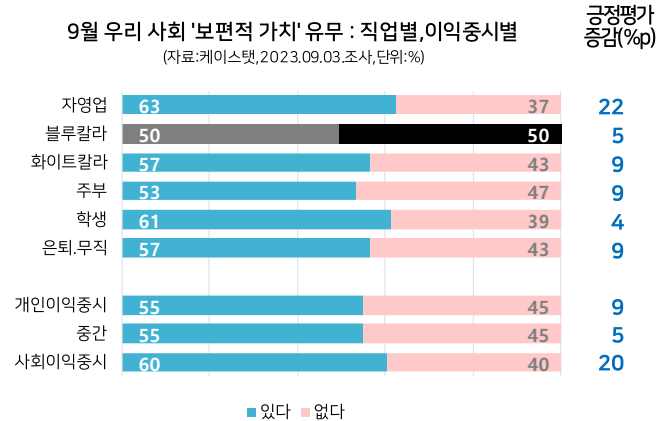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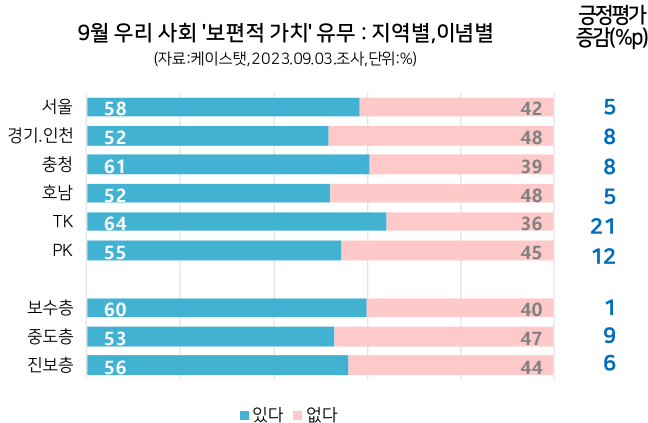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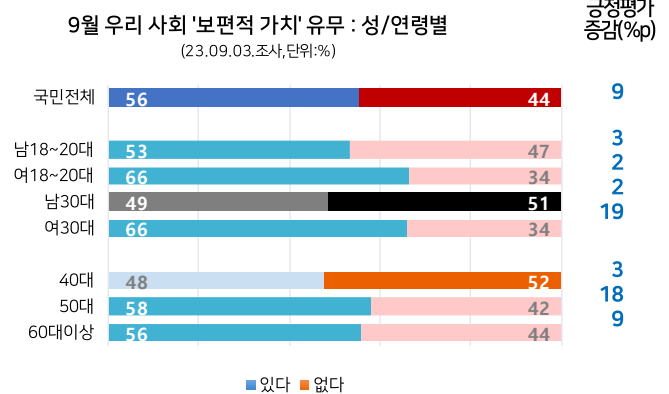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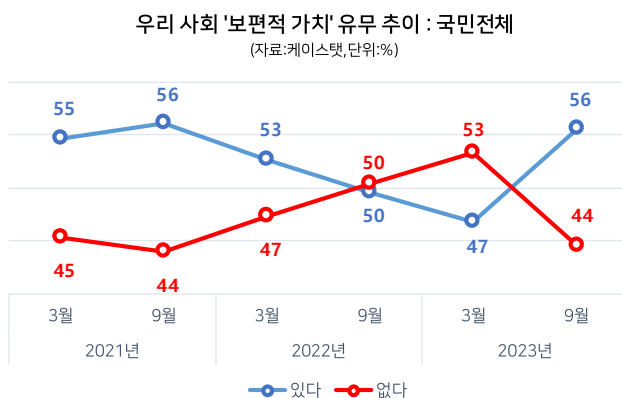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사회가 '분열됐다'는 응답이 2년 연속 85%를 웃돌고 있음
- :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성별, 세대, 정치·이념, 노사, 빈부, 지역, 종교 등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 걸쳐 표출되는데, 국민 대다수가 사회 분열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은 장기간 굳어져 있는바, 이는 심한 대립과 반목으로 점쳐져 있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지점으로 보임

□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 '있다' 56% vs '없다' 44%

- 국민통합을 위한 동인 중 하나인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유무에 대해, '있다'라는 응답이 50%를 웃돌음
 -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있다' 56%, '없다' 44%로 조사됨
- 계층별로 응답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2030세대 △충청, TK △보수층 △학생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 '없다'는 응답이 더 높은 계층은 △40대뿐인 가운데, △경기·인천, 호남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두 응답이 팽팽한 계층은 △남자 30대 △블루칼라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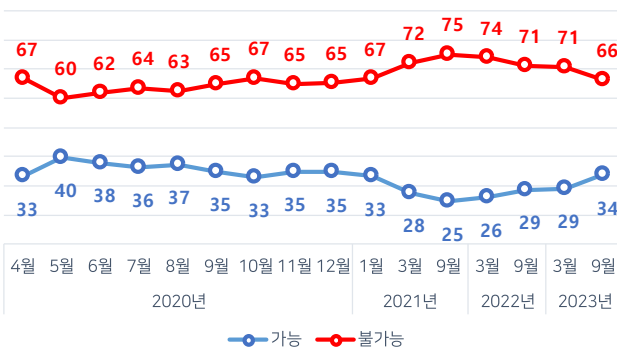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21년 9월 이후 내림세를 보인 우리 사회에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2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됨
- ☑ 윤석열 대통령은 내치 부분에서는 '공정·상식' 등을 국정운영 기치로 내걸고, 외치에서는 '자유·인권·법치' 등을 핵심가치로 내세운 '가치 외교'를 펼치고 있는바, 이러한 가치들이 작년 5월 현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각인된 것으로 보임
 - : 다만, 보편적 가치의 유무를 떠나 정부의 가치실현 측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음
 - : 8월 5주 '정부의 공정·상식의 가치실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33%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자료: N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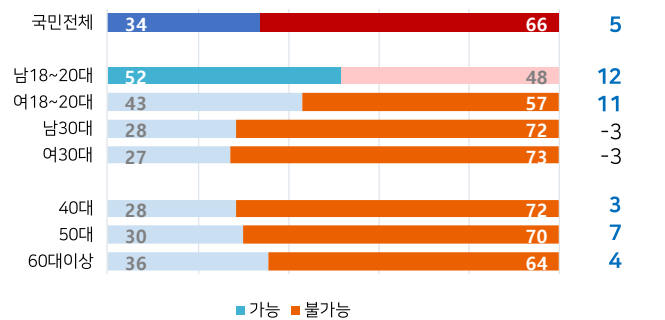
□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개인 노력으로 '가능' 34%

- 우리 사회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는 의견이 큰 폭 상승하며, 30%를 웃돌았음
 -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가능하다' 34%, '불가능하다' 66%로 조사됨
-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30대 △40대 △서울 △진보층 △화이트칼라, 주부 △월평균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층 등임
- 긍정 응답이 더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뿐인 가운데, △여자 18~20대 △충청, TK △보수층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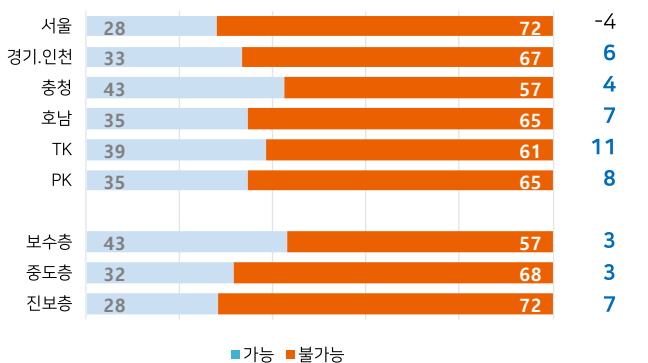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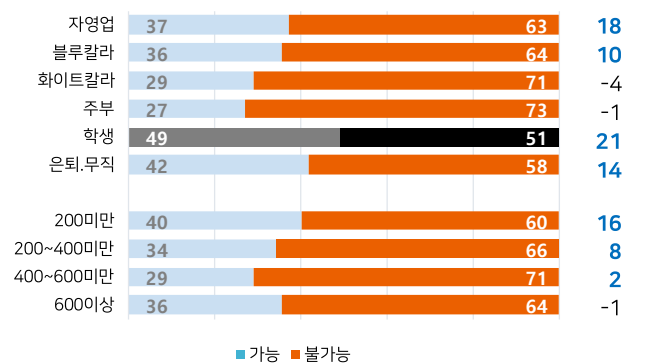
9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성/연령별 (2023.09.03 조사, 단위:%)



9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3.09.03 조사, 단위:%)



9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 2023.09.03 조사, 단위:%)



Kstat Point

-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7명가량이 '개인의 노력으로는 계층상승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 개인 노력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과 관련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2020년 4월 이후 줄곧 6~70%대에서 등락함
- ☑ 이는 국민들의 '계층 이동 사다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작고 회의감이 높은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을 수 있으며,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는 개인의 동기 약화와 경제·사회적 역동성 및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기회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83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83호는 『이념층 '자기 인식'과 '타 이념층 인식' 비교』라는 주제로 2023년 9월 21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